

총대의 위력은 사상과 신념의 위력

로 정 혁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승패는 총대에 달려있으며 총대의 위력은 혁명사상과 어떻게 결합되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 사상정신적으로 철저히 준비되고 신념이 투철한 군대는 백전백승하지만 아무리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군대라고 하여도 사상정신적으로 부패변질되고 신념이 뿔뿔한 군대는 패하기마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군대의 우월성과 위력은 정치사상적우월성과 위력이며 이것은 그 어떤 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참다운 혁명군대의 본질적특성이며 우월성입니다. 혁명의 총대에 혁명사상이 결합되면 무적필승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143페이지)

총대의 위력이 사상과 신념의 위력이라는것은 총대의 위력이 총대를 틀어쥔 군인들의 사상과 신념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군대의 위력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 병력수나 무장장비의 발전정도에 있는것이 아니라 총대를 틀어쥔 군인들의 사상정신력의 높이에 있다는것이다.

총대의 위력이 사상과 신념의 위력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사상과 신념이 총대를 틀어쥔 군인들의 활동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는데서 결정적작용을 하기때문이다.

사람은 의식적인 사회적존재이며 사람의 모든 활동은 목적의식적인 활동인것만큼 사람은 일정한 활동을 하기에 앞서 행동목적부터 정한다. 사람의 활동은 세워진 목적에 따라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진행된다. 사람의 활동이 행동목적을 규정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미리 세운 목적에 따라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나가는것은 인간활동의 합법칙적과정으로 된다.

군사활동도 사람의 활동인것으로 하여 활동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는것이 그 출발점으로 된다. 군사활동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히 규정되어야 그 수행에서 군인대중의 의지와 투쟁력이 남김없이 발휘될수 있다. 군인들은 자기들이 진행하는 군사활동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신념으로 간직할 때 강의한 의지와 투쟁력을 발휘하게 되며 지어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동요하게 되고 나중에는 군사임무수행을 포기하게 된다.

군사활동의 출발점으로 되는 행동목적과 방향을 정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결정적작용을 하는것은 군인들이 지닌 사상과 신념이다.

인간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직접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은 어디까지나 사상과 신념이다. 인간활동의 근본목적은 사람자신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있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것으로 하여 객관세계의 사물현상들의 본질과 특성이 자신의 요구와 리익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을 자신에게 리로운것으로 개조리용하는것을 행동목적으로 내세운다. 사람들이 간직한 신념도 일정한 지식, 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이 확고히 굳어진 사상의식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확신성있게 행동하게 한다.

군인들의 활동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는데는 사상과 신념 이외에도 군인들 자신이 소유한 군사지식과 무장장비, 자연지리적조건, 사회제도와 같은 여러가지 주관적조건들이 작용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은 군인들 자신이 지닌 사상과 신념에 의하여 유리하게 작용할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

군인들이 지닌 사상과 신념은 군인들이 활동목적과 방향을 세우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군사지식의 역할을 규정한다.

물론 군인들이 소유한 군사지식의 풍부성과 공고성은 그들이 군사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수립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군사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직접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은 어디까지나 군인들이 지닌 사상과 신념이며 그에 의하여 군사지식의 역할이 규정되게 된다.

군인들이 지닌 사상과 신념은 그들이 소유하여야 할 군사지식의 풍부성과 공고성, 그 습득의 속도, 소유한 군사지식의 쓸모를 규정한다. 군인들이 군사지식을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로 공고하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습득하는가 하는것은 그들 자신이 지닌 사상과 신념에 의하여 규정되며 소유한 군사지식을 어느 정도로 쓸모있게 리용하는가 하는것도 역시 군인들의 사상과 신념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사상과 신념만 투철하면 남들이 몇년이 걸려야 습득할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군사지식도 단 몇달안에 습득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공고한것으로 만들수 있다. 뿐만아니라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여야 자기가 소유한 군사지식을 군사임무수행에 적극 활용해나갈수 있다.

군인들이 지닌 사상과 신념은 군인들의 활동목적과 방향을 수립하는데 작용하는 무장장비와 자연지리적조건, 사회제도와 같은 객관적조건의 영향을 규정한다.

군인들의 활동목적과 방향을 수립하는데서 무장장비와 자연지리적조건, 사회제도와 같은 객관적조건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은 역시 사상과 신념이다. 무장장비가 아무리 우수하고 자연지리적조건이 좋다고 하여도 군인들이 그것을 리용하여 군사임무를 수행하려는 사상적준비가 되어있지 못하고 혁명승리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발동되지 않으면 행동목적자체를 제기하지 않거나 바로세울수 없다.

반대로 군인들이 자신들이 맡고있는 군사임무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게 되면 무장장비수준이 낮고 자연지리적조건이 불리하여도 그것을 유리하게 리용하는것을 전제로 하여 활동목적과 방향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혁신적으로 높이 설정하게 된다.

사회제도가 아무리 우월하고 선진적인것이라 하여도 군인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고 신념이 떨떨하면 행동목적을 바로세울수 없다.

이것은 경제대국, 군사대국을 자랑하던 소련이 총 한방 쏘보지 못하고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진 비극적사태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총대의 위력이 사상과 신념의 위력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사상과 신념이 총대를 틀어쥔 군인들의 의지와 투쟁력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기때문이다.

사람이 행동목적을 세우는것은 행동의 출발점을 마련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의 행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자면 행동목적을 바로 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활동과정을 옳바로 조절통제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적이 뚜렷하고 시작이 좋았다 해도 활동과정을 옳바로 조절통제하지 못한다면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일단 활동을 시작한 다음에는 목적을 세우는것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활동과정을 옳게 조절통제함으로써 실속있는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의 활동과정에는 의지와 투쟁력, 과학기술지식과 체력 그리고 물질적수단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주객관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그 과정을 조절통제하는 결정적요인은 역시 사람 자신이 지닌 사상과 신념이다.

사람 자신이 지닌 사상과 신념은 사람의 활동과정에 작용하는 여러가지 주객관적요인들을 규정하는것을 통하여 사람의 활동을 조절통제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군인들이 진행하는 군사활동에도 여러가지 주객관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그 결정적요인은 바로 그들이 지닌 사상과 신념이다.

물론 오늘날 군사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첨단무기들이 광범히 도입되는 현대전에서 무장장비가 가지는 의의는 날로 커지고있다. 그러나 무기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람, 군인대중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무기를 만드는것도 사람이며 무장장비를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하는것도 다른 사람, 군인대중이다. 이로부터 군사활동은 무장장비의 우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인대중이 지닌 의지와 투쟁력에 의하여 그 승패가 좌우되게 된다.

사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동해나가는 중요한 요인은 사람 자신의 의지와 투쟁력이다. 모든 군사활동이 어떻게 조직진행되고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군인대중의 강毅한 의지와 견결한 투쟁력에 의해 좌우된다.

군인들이 군사활동과정에서 높이 발휘하게 되는 의지와 투쟁력은 그들 자신의 사상과 신념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상과 신념은 사람들이 행동과정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의지와 투쟁력을 얼마나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는것을 결정한다.

의지는 요구와 리해관계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지향성, 각오와 결심이며 활동과정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목적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불굴의 정신력이다. 결국 의지는 요구와 리해관계에 대한 자각과 하나로 밀착된 의식으로서 사상의식의 내용으로 되며 그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행동과정에 얼마만한 의지를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곧 어떤 사상의식을 얼마만한 높이에서 지니고있는가 하는데 의해 규정된다. 군인들이 군사임무수행과정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맡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나가는가 못해나가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어떤 사상을 지니고 어떤 신념을 간직하였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투쟁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투쟁력은 원래 사람의 요구와 리익에 맞지 않는 대상, 그에 적대되고 대립되는 사물현상을 반대하여 싸우는 힘인것만큼 자신의 근본요구와 리익에 대한 자각이 높고 투철할수록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하기마련이다. 혁명무력건설의 지도적지침인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깊이 체득한 군인은 그와 저촉되는 온갖 투쟁대상을 반대하여 자신의 투쟁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끝까지 견결히 싸우지만 그렇지 못한 군인은 공포심과 비겁성에 사로잡혀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변절하

거나 물려서고만다.

자주적인 사상의식, 투철한 신념을 가진 군인만이 수령이 준 명령수행에 대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수 있으며 강의한 의지와 투쟁력을 지니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완강하게 이겨내면서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결국 군인대중이 지닌 사상의식의 성격과 내용, 수준, 신념의 공고성정도에 의하여 사람이 행동과정에서 발휘하는 의지와 투쟁력의 크기와 적극성이 규정되게 된다.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이기 전에 사람들의 사상과 사상의 대결, 신념과 신념의 대결이다. 생사를 판가리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망을 결정하는 전쟁마당에서처럼 사람들의 사상과 신념이 첨예하고 날카롭게 대립되는 때는 없다.

군대의 사상과 신념이 떨떨하면 아무리 현대적인 무기를 쥐고있어도 맥을 추지 못하며 군대의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면 설사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강적과 맞서 싸워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사상과 신념이라는 강위력한 보검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가 영광의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제일먼저 추켜들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앞장에서 견결히 수호해올수 있었으며 그 어떤 침략자들도 전몰케 하는 천하무적강군으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올수 있었다.

우리들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될 때 총대의 위력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펼쳐나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총대, 위력